

남원의료원 가톨릭 인보 호스피스 봉사센터



남원 의료원 전경

서남권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인 남원 의료원 호스피스 봉사센터는 2000년 3월에 남원의료원장의 초청으로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의 승인으로 원 목적을 개원으로 시작하여 2001년 10월에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의 도움으로 호스피스 정규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차에 약 800명 교육수로).

교육 수료 후 봉사자를 선별 후속 교육 3개월 과정을 통해 2002년 2월 18일 정식 호스피스 발대식을 갖고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2002년 12월에 남원 의료원 호스피스병동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어서 직원 호스피스 봉사 팀, 재가 호스피스 봉사팀을 발족하여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성 : 남원 의료원을 중심으로

▲직원 호스피스 봉사단

- 호스피스 병동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일반 직원등 20명.

▲병동 일반 봉사단(교육 수료생)

- 정회원 : 30명 - 매일, 매주 열심히 봉사하는 회원.

준회원 : 40명 - 시간이 허락할 때와 비상시에 봉사하는 회원.

▲재가 봉사단 (가정 봉사단)

-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투병중인 말기암 환자 및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를 돌봄.

봉사자 구성으로는 주부와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주말 '병동 봉사자' 와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주말 '재가 봉사자' 그리고 남원의료원내 '직원 봉사자' 로 구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병동 호스피스 봉사자는 호스피스 병동과 일반 병동을 오가며 1일 20여명 환자에게 목욕, 말벗, 성서읽기, 시트교환, 기저귀 교환, 이·미용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자 가족을 대신한 무료 간병에도 나서 예수님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재가 봉사자는 주말을 이용해 거동을 하지 못하고 돌보는 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지난해 10월 임

실 선교본당에서 인수받은 목욕차량으로 환자들을 목욕 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집안 청소, 빨래, 가재 도구 정리, 이·미용, 말벗, 전기기구 및 보일러 수리, 겨울맞이 난방확인 등 종합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병원내 직원 봉사자는 비번 또는 쉬는 시간에 어려운 환자에게 직원으로서가 아니고 봉사자로서 환자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병동 봉사자와 직원 봉사자의 손을 통해 예수님 사랑의 손길을 전해 주고, 밖에서는 재가 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해 입·퇴원환자를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목욕봉사

